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㉒

원융문이란 무엇이며 항포문은 또 무엇인가?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줄 맞추어 늘어선 것'과 같다. 청량 스님의 <현담(玄談)>을 인용해 보자. 권5에 이르기를 "항포(行布)라 말한 것은 오르고 내림(階降)과 깊고 얕음(淺深)을 줄지어 나열하고 분포하는 것이니, 저 두번째 법회에서 십신(十信)을 밝히고, 세번째 법회에서 십주(十住)를 밝히고, 네번째 법회에서 십행(十行)을 밝히고, 다섯번째 법회에서 십회향(十廻向)을 밝히고, 여섯번째 법회에서 십지(十地)를 밝히고, 일곱번째 법회에서 등각(等覺)과 묘각(妙覺)을 밝힌 것과 같다. 앞은 뒤가 아니며 뒤는 앞이 아니므로 항포라 말하였다."

개인 – 전체 조화 이뤄야 원융

상대 피해 안주며 자신 공간 만들도록

"원융(圓融)이라 말한 것은 원만하게 융통함이다. 초발심주(初發心住)가 곧 나머지 9주(住)와 십행(十行) · 십회향(十廻向) · 십지(十地) 등을 섭수함과 같다. '낱낱 지위가 차면 곧 불지(佛地)에 이르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은 따로 5위(位)가 서로 섭수함을 밝힌 것이니, 저 초주(初住)가 초행(初行) · 초회향(初廻向) · 초지(初地)를 섭수하고, 제2주(住)가 제2행(行) · 제2회향(廻向) · 제2지(地) 등을 섭수하고, 제십주만(第十住滿)이 곧 제십행만(第十行滿)과 십회향만(十廻向滿)과 십지만(十地滿)을 섭수함과 같다."

그래서 증거문으로 범행품(梵行品)에 말하였다. "초발심할 때에 곧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어서 일체법(一切法)이 곧 마음의 자성인 줄 알고 지혜의 몸을 성취하되,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않는다." 또 초지(初地)에 이르기를 "일지(一地) 가운데에 일체 모든 지(地)의 공덕을 갖추어 섭수한다. … 신(信)이 과해(果海)를 포섭함과 처음 발심할 때에 문득 정각을 이룬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열한 42위의 행법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낱낱의 수행이 무르익게 되면 한 지위가 다른 여러 지위를 섭수하여 그 속에 온갖 공덕을 모두 갖추게 됨을 말하고 있다.

이런 논의는 육상원융(六相圓融)으로 그 절정을 이루는데, 세친보살은 <십지경론(十地經論)> 권1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6가지 양상이란 총상과 별상, 동상과 이상, 성상과 괴상을 말한다. 총상이란 근본적인 들어감이요 별상이란 나머지 9가지의 들어감이요."

청량 스님은 십지품소(十地品疏)에서 이를 비유로 말하였다. "또한 마치 여러 대들보로 하나의 집을 지었을 적에 총상(總相)으로는 집이요, 별상(別相)으로는 여러 서까래요, 동상(同相)으로는 서로 서로 어기지 않는 것이 되고 이상(異相)으로는 여러 인연이 각기 다르고, 성상(成相)으로는 여러 인연에 결과가 갖춘 것이요 괴상(壞相)으로는 각기 자신의 법에 머무는 것이다."

경허(鏡虛) 선사(1846~1912)는 이런 어려운 논리를 법문을 통해 "대(大) 방(方) 광(廣) 불(佛) 화(華) 엄(嚴) 경(經) 일곱 글자를 해설하면서, 대(大)라 하면 장독대도 대요 서울대도 대요 부산대도 대다. 방(方)이라면 큰 방도 방이요 안방도 방이요 건넌방도 방이다. 광(廣)이라, 공산광도 광이요 비광도 광이요 똥광도 광이다. 불(佛)이라, 화롯불도 불이요…"라고 하여 좀더 극적으로 표현하신 적이 있다.

이런 논리는 화엄경 특유의 "개개인의 능력을 모두 인정하면서 전체와의 조화를 이루는 원융철학"을 탄생시키게 된다. 사회생활 속에서도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공간을 훌륭하게 만들어가되, 다툼이 없는 조화를 통하여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를 개척하려는 인격을 길러야 하리라.

■봉선사 능엄학림 연구원



그림 · 문병성

성차별 버리는 일 = 자비 실천

불교와 과학 〈41〉

3만개 정도로 추정되는 인간의 유전자 수는 DNA를 구성하는 4가지 염기의 배열인 염색체 안에 들어 있다. 그 염색체 수는 짝으로 구성된 23종류, 즉 46개이다. 그렇다면 염색체 하나에 들어 있는 유전자의 수는 대충 평균해서 600개 정도가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실제로는 평균값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46개의 염색체 중에서 44개는 상염색체로서 일반적인 몸의 구성을 이루는 정보를 담고 있고 나머지 2개의 염색체가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가르는 성염색체라고 불려지는 정보를 담고 있다. 여성은 X 염색체 두 개로, 남성은 X 염색체 하나와 Y 염색체 하나로 성염색체가 채워진다. 결국 여성과 남성은 46개의 염색체 중에서 단 하나의 염색체의 차이밖에 없다.

성차별

남녀 유전자 15개만 달라
차별할 만큼 큰 차이 없어

그런데 Y 염색체에는 30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15개 정도는 X 염색체와 같으며 나머지 15개 정도의 유전자만이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3만개 정도의 인간 유전자 중에서 겨우 15개의 유전자만이 남녀의 차이를 만드는 유전자 정보 풀(pool)이 되는 셈이다. 물론 남녀의 차이를 유전자의 정량적인 수 개념으로 환원하여 말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그러나 이 지면에서 말하려는 뜻은 남녀의 유전학적 차이가 우리 사회에서 보듯 그렇게 관습화된 성의 차별을 가져다 줄 정도의 대단한 차이는 절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남녀간에 생리학적 차이는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 두뇌의 좌우 구조에서 남자는 우뇌와 좌뇌의 기능 차이가 뚜렷하지만 여성은 양쪽 뇌 기능의 상호교환성이 강하다. 특정질병에 노출되는 시기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르며, 이는 성 호르몬과 밀접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세포의 노화 진행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산다고 한다. 외모로서 성기구조의 차이, 골격과 근육의 발달 정도, 성대구조에 의한 목소리의 차이, 자손에 대한 양육 의지의 차이, 그리고 호기심이나 성격의 차이 등도 당연히 있다. 그런데 인류가 조직사회화 하면서 남녀간의 외형적 차이가 사회적 차별로 바뀐 것이 문제다.

후손을 더 많이 증식시키기 위하여 암컷을 차지하려는 수컷끼리의 싸움이나, 그렇게 차지한 암컷을 강하게 지배하는 권력구조는 동물에게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인류는 문화를 소유하고 나아가 일부일처제로 되면서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굳이 지배 관계로 만들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남성은 더 나은 골격과 근육 그리고 더 강한 소유욕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지배권력을 행사해 왔다. 이러한 성적 지배권력은 인류 문화사를 통해서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 서구 기독교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아예 해부학적 차이를 갖는 것으로 묘사하여 성적 차별을 정당화했으며, 동양 유교에서도 여성을 남성에 손쉽게 귀속시키는 성 차별의 논리를 전개해 왔다.

인류사회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작은 싸움이나 큰 전쟁의 전리품인 성차별을 통한 남성 권력의 소유를 미련 없이 버려야만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남들도 원하고, 내가 싫어 하는 것은 남들도 싫어한다.' 바로 이 간단한 명제는 '담마파다(Dhammapada, 법구경)'의 기본적인 제안이다. 그리고 이것은 불교에서 '자비로움'의 기본명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자비로움을, 자비를 베푸는 이가 따로 있고 자비를 받는 이가 따로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그것은 정말 착각이다. 불교의 자비는 베풀고 받는 이가 따로가 아니다. 그렇듯이 여성 특유의 보살핌(Care)의 행동과 그 정신은 여성이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베풀고 남성은 그런 보살핌을 향유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함으로써 성차별을 불러왔다. 이렇게 베풀고 받는 주체를 따로 구분하는 일은 결국 인류사회의 전쟁과 지배권력 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 왔을 뿐이다.

나는 여성의 편을 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자비 정신을 진정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성차별을 통한 남성의 잘못된 기득권들을 남성 스스로가 내던져야 한다는 뜻에서 말했다. 원래부터 남녀간에 생물유전자적 우열이 있다는 둥, '여자는 역시 그렇지'라고 하면서 성격구조가 원래부터 그렇다는 둥, 그런 말들을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말의 내용과 관계없이 결국 남성만의 지속적인 편리함과 성적 권력을 유지하려는 구차한 핑계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남성들 그리고 성차별에 이미 익숙해진 여성들 모두 그런 핑계를 과감히 버리는 일, 그것이 자비의 작은 실천임을 알자. 그런 지혜만이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큰 전쟁에서부터 주변의 권력싸움이나 질시, 과욕 등도 따라서 없어지는, 아주 괜찮은 부수입도 있다.

■최종덕/상지대 교수 jdchoi@chiak.sangji.ac.kr

사찰 · 교육기관 점거 스님 5천여명 추방

지구촌 불교 / 中 티베트 탄압 강화

무장한 중국 공안(경찰)들이 티베트 불교사원과 교육기관에 난입해 스님들을 내쫓고 있다.

AP 통신은 20일 티베트 정보 네트워크(Tibet Information Network) 등 감시 그룹의 말을 인용, "공안들이 중국의 서쪽 국경지역의 티베트 불교 사원과 교육 기관을 점거하고, 수백명의 스님과 불교학자들을 내쫓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안들의 탄압행위는 주로 중국 내 티베트 불교의 주요 거점인 쓰촨(四川) 성과 인근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다. 특히 티베트 불교계의 최대 교육기관으로 7000여 비구 · 비구니 스님들이 공부하고 있는 세타르(Sethar Buddhist Institute)의 경우, 무장한 공안들에 의해 세타르는 물론 인근 지역 건물까지 파괴되고 있으며, 스님들은 티베트 종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비난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몇몇 비구니 스님들이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해 사망했다는 설도 나돌고 있다.



◇티베트 불교계 최대 교육기관인 세타르에서 스님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

쓰촨성 안팎에서 자행되고 있는 중국 공안의 만행을 보도한 AP 통신의 안토니(T.Anthony) 기자는 "중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티베트 불교계의 포교 활동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것은, 중국 당국이 티베트 불교계의 활동을 '중국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안 사천성 일대 검문 · 건물 파괴
고승 투옥 … 비구니 스님사망 소문

중국 당국은 지난 6월 "이 지역 불교사원과 교육기관의 활동은 불법이기 때문에 공공질서를 위해 폐쇄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해당 사원과 교육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스님들에게 떠날 것을 강요했다.

또한 안토니 기자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0월경 중국을 방문하기로 한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미 · 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쓰촨성 안팎에서 진행되고 있는 티베트 불교 탄압 행위를 단기간에 조직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미 5000여 명의 스님들이 추방됐고, 세타르의 주지인 푼촉(Phuntsok) 스님 등 이 지역 고승들 대부분은 중국 행정당국에 붙잡혀간 것으로 보고 있다. 푼촉 스님은 1980년대 중국의 통제를 받는 티베트 불교기구에서 탈퇴한 후 세타르를 세운 고승이다. 세타르는 7000여 명의 스님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중국내 티베트 불교계 최대 규모의 교육기관이다.

한편 홍콩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는 별도 기사에서 "티베트 스님 다수가 당국의 통제와 탄압에 '은밀히 저항'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당국이 스님들의 숙소를 불시에 검문해 인도 망명 중인 달라이 라마의 사진 소지 여부 등을 가려내고 있으나 스님 대부분이 달라이 라마의 사진을 감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